



2020년 7월 24일  
천주교 사이타마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하여 (제 10 차)

주일미사의 단계적인 재개로 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성당에서 보내주신 보고에 의하면, 거의 모든 성당에서 순조롭게 미사가 재개되어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개하지 못 한 성당, 미사를 재개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제 2파의 시작으로 보이는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하는 수 없이 다시 미사를 중지하기로 한 성당 등, 지역에 따라 여러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로하신 분 들에게는, “생명을 지킬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고 부탁 드렸습디만,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연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감염의 기세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급속히 그 기세가 강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각 성당으로부터의 보고와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교구로서는, 당분간,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대응을 계속 유지해 나아 가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성당에서, 이전과 같이 안심하고 주일을 축하하며,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지금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여러분과 인내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하여,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8월 31일까지, 제 9 차 대응을 유지하겠습니다.

- (부 1) 계속하여,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부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부님들의 지도에 따라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 2) 주일미사 주교의 설교는 교구의 홈페이지에 매주 게재됩니다. 주일이 지난 후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됩니다.

아베 마리아!